

[사 회]

전남대 '탈많은' 구조조정

교수들 "학과·학부 일방적 재배치" 강력 반발

잇단 성명서·항의성 글 게재...토론회 또 연기

전남대가 약학대학의 약학부 전환 등 일부 대학·학과·학부 재배치를 골자로 한 대학 구조조정안을 놓고 시끄럽다.

전남대 구조조정안 태스크포스인 '통합대학 특성화 전략수립위원회'가 최근 마련해 교수들에게 공지한 편제 개편안에 대해 각 단과대별로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급기야 10일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도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다.

전남대는 9일 "통합대학 특성화 전략수립위원회가 마련한 편제개편안을 갖고 10일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교수평의회에서 '본부가 확정한 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 게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토론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지난 3일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10일 토론회를 한차례 연기했다. 전남대 교수들은 이에 앞서 통합대학 특성화 전략수립위원회가 최근 교수 30인 미만 대학의 독립학부제로의 전환 등 일부 학과·학부 재배치 및 명칭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제개편안을 내놓자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대학 본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간호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사범대, 산업공학과, 생명과학기술학부, 인문대, 약학대, 자연과학대 교수 일동은 각각 성명서와 자신들의 입장

을 담은 글을 교내 전산망에 게시했으며 교수 개인의 항의성 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과대학에서 독립학부제로의 전환이 제시된 약학대 등 일부 단과대의 교수와 단과대로의 이동이 검토된 생명과학기술학부 등 일부 학부의 교수, 학과에서 학부로 통합이 거론된 산업공학과 등 일부 학과의 교수들은 지위 격하 등이 우려된다며 "개편안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전남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의 안은 대학본부의 입장이 아닌 구조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본부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6월 중 경쟁제 총장이 단과대 순회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확정지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5·18 '팩션 드라마'로 부활

'KBS 스페셜' 오는 14일 방영

5·18 민주화운동을 '팩션(faction) 드라마' 형식으로 재조명한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KBS 1TV 'KBS 스페셜'은 오는 14일 오후 8시에 작가 정찬의 소설 두 권에 등장한 인물의 내면 풍경을 좇아 5·18 민주항쟁을 돌이켜보는 '팩션 드라마 오월의 두 초상'편을 방송한다. 정찬의 소설 '완전한 영혼'과 '슬픔의 노래'를 원작으로 삼았다.

▲팩션(faction)=팩트(fact)와 픽션(fiction)을 합성한 신조어.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문예수장르.

'완전한 영혼'의 장인하는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청각장애자가 된다. 하지만 누구에 대한 증오도 품지 않은 채 침묵 속에 살아간다. 인간 내면의 선한 정신을 믿고 주위를 설득하고자 한다.

'슬픔의 노래'는 가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갈등을 다층적으로 그린 작품. 주인공 박은형은 계엄군 출신으로 '5월' 이후 한국을 떠나 폴란드에 정착, 고통에 자신을 내맡기며 살아간다.

프로그램은 두 소설을 엮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연극배우 박지일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연기했다. 박지일은 박은형의 현재와 장인하의 과거 등을 오가며 이야기를 끌고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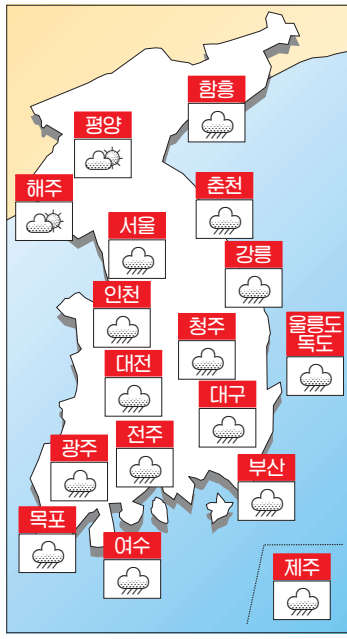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행형색색 우산행렬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5월 10일 (음 4월 13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16~20°C
포항	흐리고 비	16~19°C
여수	흐리고 비/뇌전 곳	15~18°C
수원	흐리고 비	16~18°C
대전	흐리고 비	16~20°C
대구	흐리고 비	15~18°C
부산	흐리고 비	16~18°C
제주	흐리고 비	15~18°C
서울	흐리고 비/뇌전 곳	14~18°C
인천	흐리고 비	15~20°C
안동	흐리고 비	15~19°C
충주	흐리고 비/뇌전 곳	16~18°C
청주	흐리고 비	17~21°C
대전	흐리고 비	17~20°C
부산	흐리고 비	17~20°C
제주	흐리고 비	17~20°C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3.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0:11 썰물 < 05:40
 12:21 썰물 < 17:50
 여수 밀물 < 07:16 썰물 < 01:14
 19:47 썰물 < 13:20

▲해돋이 05:33 ▲해질 19:25 ▲달돋이 16:35 ▲달짐 03:4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날씨						
최저/최고	15/25	12/26	14/22	12/25	11/26	12/27



장애우 모의투표 '우리 이웃 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주숙자)가 주최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모의 투표'가 9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 '우리들 교회'에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몸이 불편해 투표를 기피해온 장애인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선관위 협조아래 실제 투표와 똑같이 진행된 모의투표에서 한 중증 장애인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5·18항쟁 참가자 43명 삼척교육대 강제 입소

일부 청송감호소 장기감금 유족회서 명부 대조 조사

광주·전남 지역 5·18 민주항쟁 참가자 43명이 삼척교육대에 강제 입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중 일부는 삼척교육대에서 퇴소 후 신군부에 의해 청송감호소에 장기감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5·18 유족회'는 삼척교육대 피해자 명부와 5·18관련자 명부를 대조한 결과, 광주·전남 강제입소자 717명(광주 242명, 전남 475명) 중 43명이 5·18항쟁 참가자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유족회가 삼척교육대 피해자 명부와 5·18 항쟁자 명부를 놓고 지

난해 1년간 대조작업을 벌여 5·18항쟁 참가자 강제 입소 전과정을 추적한 끝에 밝혀낸 것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모씨(48·영광군 군남면)는 지난 80년 5월19일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진압군에 의해 체포됐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8월1일 31사단으로 연행됐고 한달 뒤 강원도 2사단 17연대로 끌려갔다. 양씨는 다음해 11월20일까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당시 청송 제 1감호소로 옮겨져 1년 넘게 감금됐었다.

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삼척교육대 입소자 전국명단과 5·18 항쟁자 명단을 비교하면 5·18 참가자들의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전동·번개 속 최고 80mm 비

광주·전남 호우 예비특보

10일 광주·전남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화남 지역에 머물러 있던 저기압이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10일 광주와 전남에는 30~60mm, 강하게는 80mm의 비가 오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또 저기압의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서 천둥·번개가 칠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곳에 따라서는 호우주의보(24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는 저기압이 남해안을 완전히 빠져나가는 10일 밤 늦게부터 겹 겹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한편 9일 광주·전남은 곡식의 낮 최고기온이 26.8도까지 올라가는 등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호남대 새 총장 이현정씨



호남대(학교법인 성인학원)는 "8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이현정(58·사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제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임 이 총장은 장학 출신으로 광주·함양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사범대 교수·부산대 사범대학 부교수 및 교직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유네스코 학점교육 및 학력 인정총회 세계 의장, 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 의장,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 총장은 "다양한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대가 경쟁력 있는 지역거점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은 오는 23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세무사 시험 10개문항 추가 정답 오류

지난달 16일 치러진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 영어과목에서 11개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이어 재정학·회계학·세법학 등 5개 과목의 10개 문항에서도 정답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세무사 1차시험 문제 200

문항 중 10.5%인 21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국세청 산하 국제공무원교육원은 9일 세무사 1차 시험의 정답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

정확 3개 문항, 세법학 1개 문항, 회계학 4개 문항, 상법과 민법에서 각각 1개 문항 등 5개 과목 10개 문항에서 정답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오류가 발생한 10개 문항 가운데 5개 문항은 '모두 정답'처리하고, 4개 문항은 '복수 정답'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1개 문항은 정답을 '정정'했다.

/연남뉴스

부장급 감사도 평점으로 발령

법무부는 부장급 감사를 일선 지방 검찰청의 평점으로 발령해 후배 부장 감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쟁 시스템을 통해 민간 분야의 기술·서열 파괴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또 2003년 도입한 전문부장 제도가 사실상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판단, 추가 발령을 내지 않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태양광주택백보급,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속순 마감

정부 무상보조 신청 접수

태양광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 인건비, 시공비, 유지보수비용 등 70%를 국가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세대주입니다.

-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중소기업 대표이사
- 청년취업희망기업 창업주
- 중소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 대표이사

신청 자격

- 세대주(세대주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제외)
- 세대주(세대주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제외)
- 세대주(세대주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대주 제외)

신청 방법

태양광주택백보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신청처

태양광주택백보급 신청서 접수처: 10021-369-1800

태양광주택백보급 신청서 접수처: 111-242-7704

전국은 바다와 심에 폭~배웠다!

광주 청업 설명회

청업이란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직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광주는 청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청업이란 바다

광주는 청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청업 설명회

청업이란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직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광주는 청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청업이란 바다

광주는 청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직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청업 설명회

청업이란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직종과 분야를 아우르는 직업군을 말합니다. 광주는 청업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